

“제주 본향당 이야기”

- 표선면 표선리 당케할망당 신화 -

1. 채록대상자 : 마치순/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2. 채록일자 : 2017.05.02

옛날 옛적에 표선 마을에 웃손당은 금백주, 셋손당은 세명주, 메알손당 소로소천국, 말젯아들이 혈을 불라서 웃손당에서 혈을 불란. 표선 저 바당 동산 좌정 혈이 좋으면 자손들도 번성할 듯 허고, 좋을 듯 허고 허난 이젠 거기 좌정을 행 아지난.

밤인 그냥 피리당저 옥당저 내낭 하르방이 막 그냥 노뎀을 노는거라. 경허난 흥씨 하르방이 아이고 이상하다, 이 야삼경에 무슨 피리당주 옥당주 소리가 남신고 해연. 강 보난 이제 소천국 말젯아들님이 신이 뉘서 그쪽으로 내려 온 거주 동산에 앉안 이 시난,

아이고 어느 누게 되십니까 허난.

너는 구신이나 생인이나, 그 분이 말젯아들이, 흥영감보고, 너는 구신이나 생인이나 하난,

구신이 뭐 허레 여기 오겠습니까 나는 이 마을 사는 흥씨 자손이우다 하난,

네 그러면 이 마을에 댕 성밧치가 사느냐 하난,

아휴 성밧치가 삽니다. 자세히 그건 모르고 아휴 성밧친가 삽니다 하난 경허면 어느 누구를 그걸로 삼습니까,

현씨집안을 상단골로 삼으라.

경허난 잡수고 싶은 건 뭘 잡습니까 하니까, 이제 벅돌레 벅시리 청감주 저소주 엄매 단매 녹이당산매 즈소주를 계란안주 즈소주를 받아내 한상 출려당 놓으난

이제 동으로도 뱅이 들어오면 서으로 막아주고, 서으로 들어오면 뱅이 동으로도 막아주마 경허곡,

나는 정월 초 일뤼날 초 사흘날 자손들에 과세 열명을 받으켜 영 허곡.

이젠 할망은 세명주 할망일 테주게. 이 보름알로 부정하고 서정하난 보름알로 내려선 나 빨래 연서답이나 해여도라 행,

초일뤼에 상받고 예일뤼에 상받고 스무일뤼 상받고, 잠녀 어부들 상선 중선 하선 차질으신 할마님이우다.

애기들 눈앞에 보이난기여, 강비리 물비리 흥허물 너벅지시도 할마님한테 불상 빌면 다 ㅋ컬헝게 쓸어준다.

영 해연. 이게 본초우다.